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영신수련 전반에 걸쳐 이냐시오는 “돕다to help”라는 의미를 지닌 스페인어 *아유다르ayudar*를 강조한다. 이냐시오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사목 활동을 가장 단순하게 설명한다. “돕는다”는 것은 겸손하게 봉사하는 길이다.

1537년 이냐시오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동료들과 함께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하려던 봉사에 대해 혼란스럽고 기운을 잃은 상태였다. 초기 예수회원들이었던 이냐시오와 그의 동료들은 주님께 봉사하겠다고 서원을 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히 알지 못했다. 처음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지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좌절되었다. 이제 그들은 두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그 계획은 로마로 가서 자신들을 교황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었다.

이냐시오는 로마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라스토르타라는 작은 마을의 길가에 있는 경당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 문제에 대해 기도했다. 그는 성모님께 자신이 당신의 아드님 곁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기를 간청했다. 한동안 그는 “저를 당신 아드님과 함께 있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냐시오는 그 경당에서 아주 특별한 신비적 현시를 경험했다. 이

나시오는 성부 하느님을 보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성부께서는 이나시오에게 “우리는 로마에서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성부께서 예수님께 “나는 네가 우리[성부와 성자]에게 봉사하도록 이 사람[이나시오]을 택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나시오에게 “우리[성부와 성자]는 네가 우리에게 봉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나시오는 로마를 향해 계속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예수회는 실로 많은 은총을 받았다. 이나시오는 이 모든 일이 라스트르타에서 보았던 신비적 현시가 실현된 것으로 생각했다. 예수회 전통은 이 현시를 하느님께서 예수회 전체에 내리시는 신적으로 승인된 사명의 약속으로 여겨 왔다. 오늘날 우리는 이 현시가 이나시오 영성에 영향을 받은 모든 이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이 현시는 우리의 사명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예수님의 파트너로서 그분의 일에 봉사하는 것이지, 나의 일을 이루려 계획하는 것이 아니다. 라스트르타의 현시는 역동적인 봉사의 모습을 보여 준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 어디론가 가고 계시는 것이다. 결국, 십자가가 이 현시의 핵심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동반하는 것의 핵심 또한 십자가인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궁극적인 상징이다. 우리가 하는 봉사는 사랑을 쏟아붓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나시오는 우리가 하느님께 봉사한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했다. 영신수련에서는 군대의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왕의 부르심」에 대한 관상은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투신하라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초대한다. 「두 개의 깃발」 묵상에서는 루치펠의 깃발 아래에 있는 군대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 있는 군대가 서로 격돌하는 장면을 상상한다. 하지만 이나시오가 『예수회 회헌』을 작성했을 때에는 봉사의 이미지를 다르게 선택했는데, 바로 마태오 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밭 일꾼의 이미지이다.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발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오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아홉 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적당한 값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에도 나가 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마태 20,1-7)

포도밭은 하느님 나라를 상징한다. 포도밭은 아주 바빠 돌아가는 곳이며, 생명과 활동과 성장이 넘쳐나는 곳이다. 하느님은 포도밭에 씨앗을 뿌리고 경작하며 추수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느님은 온종일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젊은이와 늙은이, 부유한 이와 가난한 이, 남자와 여자를 망라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해야 할 일이 있고, 일을 오래 했건 잠시 했건 그 값은 동일하다. 그 값이란 바로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사명과 사목이라는 말에는 고귀한 뜻이 담겨 있다. 이냐시오는 아주 간단한 말로 봉사의 뜻을 알려 준다. “돕다”라는 뜻의 스페인어 *ayudar*를 사용한 것이다. 그는 종종 예수회가 하는 일은 “영혼을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냐시오 영성은 하느님께서 다른 사람의 삶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며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도록 돕는다.

누구라도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다. 돕기 위해 대단한 훈련이나 학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매우 젊은 사람들도 도울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매우 나이가 든 사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냐시오적

관점에서 볼 때 봉사하는 데 어떤 사목상의 직무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즉, 일터나 집에서 가족과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나, 지나가며 만나게 되는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 예수회원들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과 사목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법률, 예술과 과학, 의학 사실상 모든 전문 분야에서 활동한다. 이냐시오 영성은 봉사에 대해 거대한 지평을 열어 준다. 봉사를 본질적으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께 봉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어,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고, 식별해야 하고,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혼을 돕는 일에 있어 초조해질 필요는 없다. 하느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하느님은 우리를 봉사의 길로 부르시며 함께 일할 동료와 친구를 보내 주신다. 일은 하느님의 것이다. 우리는 단지 하느님의 일을 도와 드릴 뿐이다.